

광야 초막에서 시작되는 구조의 전환

새부대교회 · 주일 설교 「초막절의 은혜」에서 한 걸음 더

주일에 초막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저주 구조에서 건져 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의 초막 안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장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번 주는 그 정체성이 실제 선택과 삶의 구조로 바뀌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이번 주 불독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
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롬 8:15

1 한 걸음 더 — 종의 영을 끊고 장자의 마음을 입는 법

본문 롬 8:15-17

롬 8:15-17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종의 영은 두려움과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늘 “혹시 망하면 어쩌지?”,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은 받아야지”를 따지며, 부족할 것 같아 움켜쥐고, 모자라면 대출과 편법부터 떠올립니다.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수고해도 쌓이지 않고, 빚과 불안이 반복되는 구조가 바로 이런 종의 사고방식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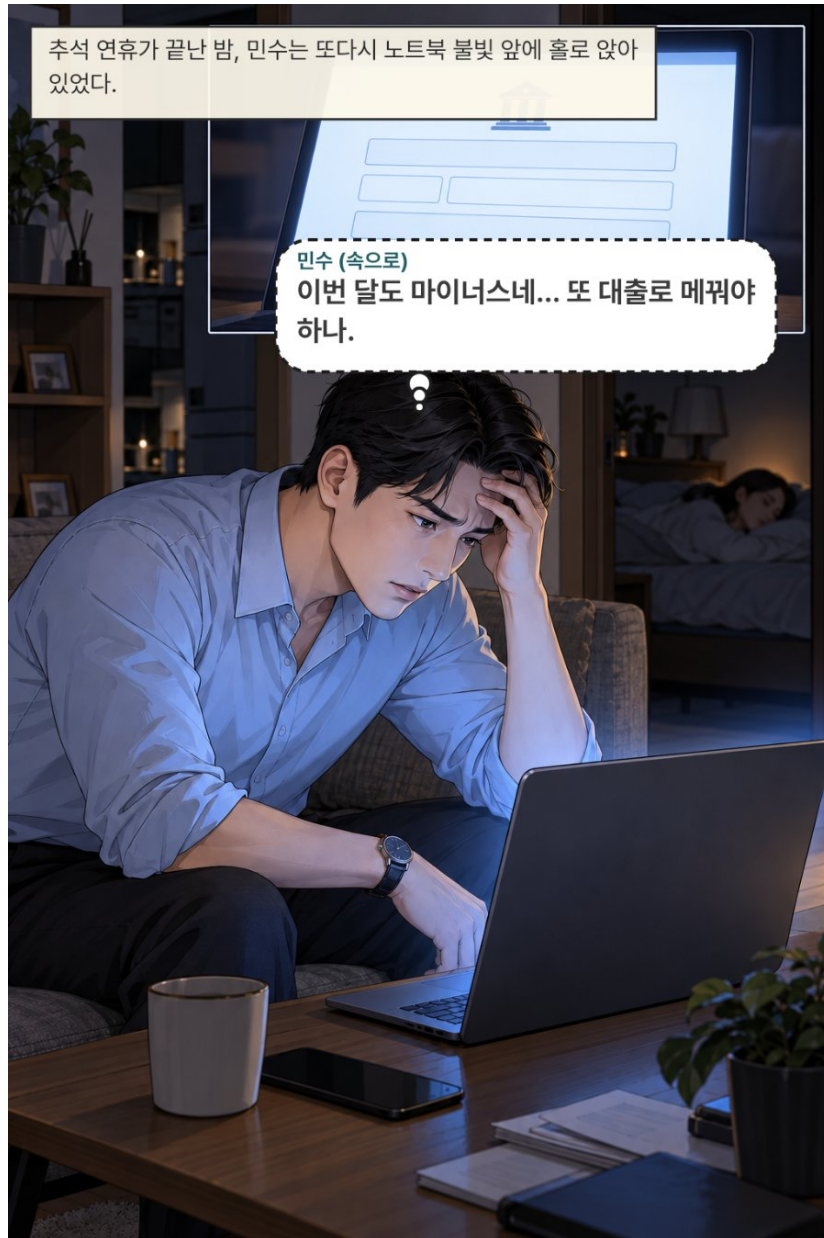
반대로 양자의 영, 장자의 마음은 “아바 아버지”를 신뢰하며 삽니다. 내 수고의 결과만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의 유업과 계획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위험한 투기 대신 말씀의 원칙(정직, 절제, 나눔, 십일조)을 선택하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공동체와 상의합니다. 종은 월급만 보고 일하지만, 장자는 “왕이 되는 수업” 중인 사람답게 지금의 자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훈련장으로 봅니다.

오늘 해 볼 수 있는 작지만 분명한 훈련을 정해 보십시오. 첫째, ‘종의 선택’ 하나를 끊으십시오. 예를 들어 미신과 부적, 점집 예약, 무리한 대출 계획, 숨기고 있는 투기성 투자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자의 선택’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정직한 재정 관리, 작은 금액이라도 신실한 십일조와 헌금, 자녀를 위한 과한 조종 대신 축복과 파송의 기도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을 사모한다는 것은, 격한 체험만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구조를 장자의 방식으로 바꾸어 가도록 성령께 자신을 내어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아직도 남아 있는 종의 영의 흔적을 비추어 보여 주시고, 장자의 마음으로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해 보십시오. 그때 초막절의 은혜가 머리가 아니라 재정, 진로, 가정의 구조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 웹툰 — 대출 버튼 앞에서 멈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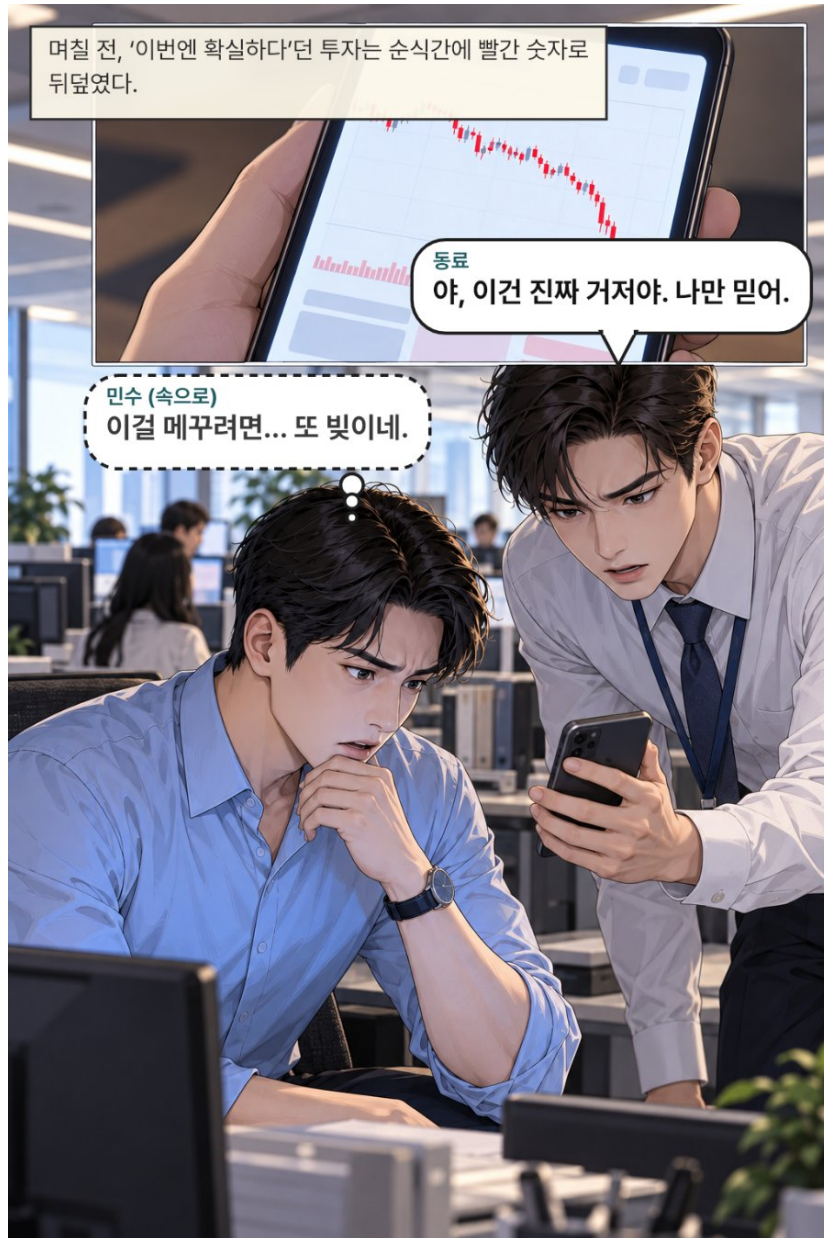
1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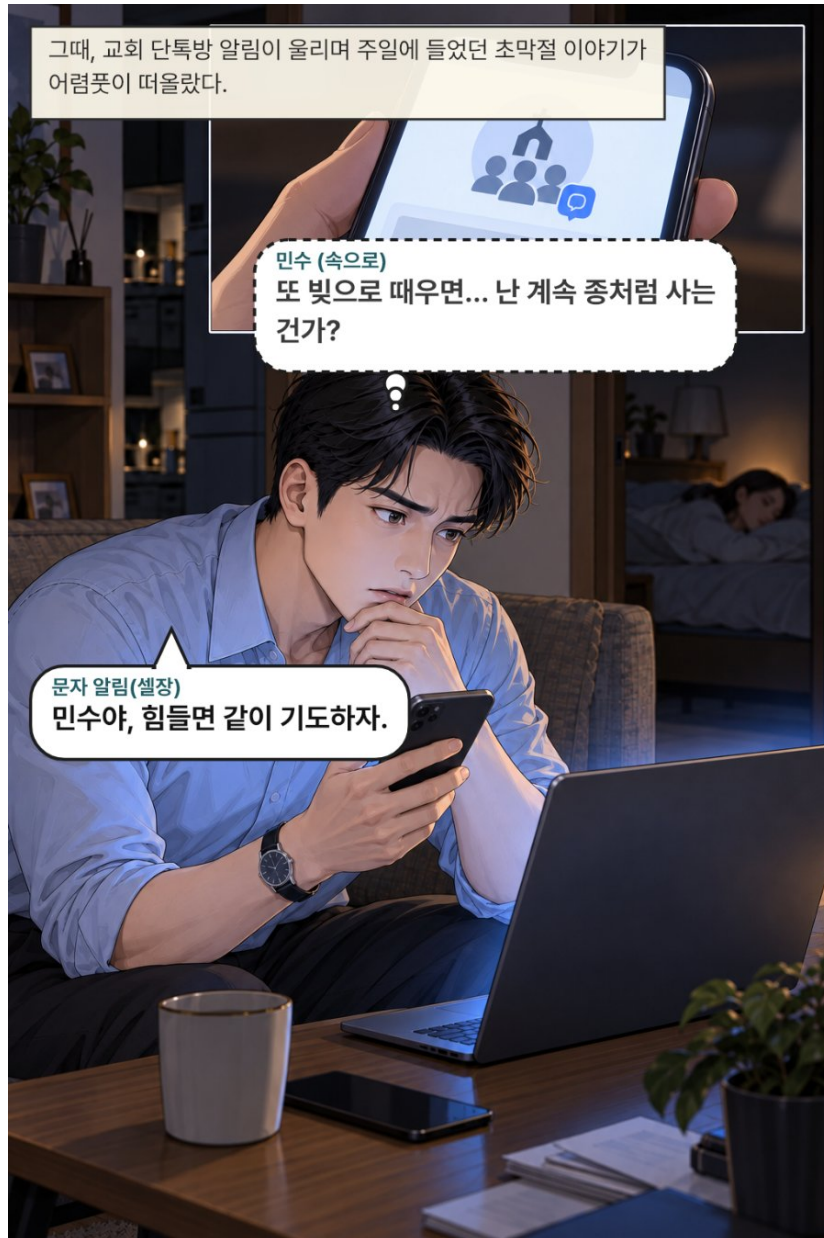
추석 연휴가 끝난 밤, 민수는 또다시 노트북 불빛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민수 (속으로)
이번 달도 마이너스네... 또 대출로 메꿔야 하나.

2컷



3컷



그때, 교회 단톡방 알림이 울리며 주일에 들었던 초막절 이야기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민수 (속으로)
또 빛으로 때우면... 난 계속 종처럼 사는
건가?

문자 알림(셀장)
민수야, 힘들면 같이 기도하자.

4컷



5컷



6컷



3 결단송 — 광야 초막에서 왕이 되는 수업



▶ 누르면 유튜브에서 영상이 열립니다

장자의 노래 (광야 초막에서)

타는 듯한 낮이 지나 찬 이슬 내리는 밤
광야 한가운데 바람에 흔들리는 초막
흙먼지 실어 오는 바람결 속에서
애굽을 떠나오던 그 밤을 다시 기억해

[1절]

나도 한때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이름 모를 그늘 아래 엎드려 살았네
손을 펴면 무너질까 움켜쥔 지푸라기
낮선 목소리에 내 아침을 맡겼었네

피로 물든 강과 짙은 흑암 속에서도
주님은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선하고 신실하신 그 이름 드러내사
나를 두려움의 집에서 이끌어 내셨네

[후렴 앞]

보이지 않아도 초막 위로 불어오던
그 밤의 바람이 오늘 여기 불어와
애써도 손에 남지 않던 굴레를 끊고
새로운 길로 나를 부르시네

[후렴]

이제 나는 종이 아니라 주의 장자로 살겠습니다
빛과 두려움의 사슬 끊고 주의 손만 붙들겠습니다

광야 초막에서 배우는 왕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종이 아니라 주의 장자로 살겠습니다

[2절]

땀 흘려도 빈손이던 날들 속에서
한탕의 꿈과 욕심이 내 귀를 채울 때
말씀보다 익숙한 세상 셈법을 따라
빛을 내어 내일을 미리 써 버렸네

그때 성령이 가만히 내게 물으셨네
누구의 음성 따라 이 길을 걷고 있느냐
너의 예루살렘, 네 집과 일터에서부터
보냄받은 자의 마음으로 다시 서라 하시네

[후렴 앞]

보이지 않아도 초막 위로 내리는 비
이른 비 되어 메마른 땅 적시듯
성령의 강물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메마른 골짜기를 채우시네

[후렴]

이제 나는 종이 아니라 주의 장자로 살겠습니다
품삔 세던 품꾼의 눈을 들어 아버지의 유업 바라봅니다
광야 초막에서 배우는 왕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종이 아니라 주의 장자로 살겠습니다

[브릿지]

성령이여 이른 비로 우리 위에 내리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넘치게 하소서
말씀 앞에 온 마음이 무릎 꿇게 하시고
땅끝을 향해 내 삶의 걸음을 돌이키소서

대물림이라 체념했던 오랜 틀을 깨뜨리시고
두려움의 유산 대신 믿음의 길을 여소서
자녀 붙잡던 이 두 손 펴서 축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게 하소서

[후렴]

이제 나는 종이 아니라 주의 장자로 살겠습니다
애굽의 멍에 벗어 두고 광야 초막에서 노래합니다
열방을 품은 왕의 학교,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종이 아니라 주의 장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의 장자로 살아가리라

고요한 밤, 초막 위로 별빛이 쏟아질 때

나는 다시 속삭이네, "아바, 아버지"

약속의 땅으로 이어진 이 길 위에서

오늘도 한 걸음, 주와 함께 걷네

이번 주 결단

대출과 미신, 두려움과 계산에 묶인 종의 선택을 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요 선교사로 부르신 정체성에 합당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애굽의 저주 구조에서 건져 내신 하나님, 더 이상 종의 영에 매이지 않고 양자의 영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오늘날 나의 재정과 진로와 가정의 결정들 속에서 장자의 마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른 비를 부어 주셔서 왕이 되는 수업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